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30권 1호, 2025, pp. 3-21
https://doi.org/10.21321/jfr.30.1.3

코로나 19시기 제주 노인의 자녀와의 결속도 유형과 우울감간의 관계: 다중 자녀에 대한 고려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행정・심리학부 민주홍**
숙명여자대학교 가족자원경영학과 황우상***

목 차

Ⅰ. 연구 목적 및 필요성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 대상 및 방법
Ⅳ. 연구 결과
Ⅴ.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초록

연구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인해 경로당이나 노인여가복지시설 등의 대면 프로그램이 전면적으로 제한을 받은 시기 제주 노인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이들의 자녀와의 관계의 패턴과 우울감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관련 선행연구의 경우 세대간 관계의 결속의 다차원성을 고려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했을 뿐 아니라, 다수의 자녀를 분석에 고려한 연구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연구방법:** 이 연구는 위기 상황시에 활성화 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진 지원의 원천으로서의 관계망으로서의 세대관계를 강조한 잠재 가족 매트릭스 (latent kin matrix) 이론과 결속의 다차원성을 제안한 세대간 결속도 모델에 근거하여, 잠재계층분석을 통한 세대간 결속도를 유형화하고,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우울감과의 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연구결과 가장 빈번하게 접촉한 자녀로부터 최대 세 자녀에 걸쳐, '친밀한 유형'과 '친밀하나 거리가 있는 유형'이 공통적으로 도출되었다. 가장 빈번하게 접촉하는 자녀와, 두 번째로 빈번하게 접촉하는 자녀와의 세대 관계의 경우 '친밀한 유형'이 '친밀하나 거리가 있는 유형'에 비해 우울감이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2021S1A5A8064814)
** 주저자: https://orcid.org/0000-0001-5292-3905
*** 교신저자: woosanghwang@sookmyung.ac.kr, https://orcid.org/0000-0002-2034-3970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세 번째로 빈번하게 접촉하는 자녀와의 결속도의 경우 유형 간 유의한 우울감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결론:** 이러한 결과는 위기상황에서 여전히 가족은 중요한 결속의 단위로 기능하는 것을 방증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공공서비스가 특수한 상황에서 제 기능하지 못할 경우 특히 대면접촉과 관련 일상생활지원에 제한을 받는 노인에 대한 세심한 서비스적,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주제어: 결속도, 노인 부모, 성인자녀, 유형화, 코로나 19

Ⅰ. 연구 목적 및 필요성

현재 한국의 가족구조와 관련하여 가장 눈에 띄는 변화이자 정책적으로 주목받는 이슈 중 하나는 1인 가구의 증가이다. 통계청 인구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2000년 가구 중 1인가구는 전체의 15.5%였는데, 2023년 이 비율은 35.5%로 증가했다(통계청, 2023). 2024년 전국의 1인 가구는 약 1002만가구로, 1000만이 넘은 것은 인구통계 집계 이래 처음이다(행정안전부, 2024). 가구 구조의 변화뿐 아니라, 부모 부양에 대한 가치관 변화도 뚜렷하게 감지되고 있다. 통계청 사회조사 자료에 따르면 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 인식에 대해, 2006년에는 전체의 63.4%가 가족의 책임이라고 응답하였는데 반해, 2022년에는 이 수치가 19.7%로 급감하였다(통계청, 2024). 이와 같은 가구구조와 가족기능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두고 일견 노년기 지원과 부양의 원천으로서의 가족의 기능이 약화되었을 가능성의 측면에서 논의해 볼 수 있다.

하지만, 가족 레질리언스를 강조하는 학자들은(Bengtson, 2001) 가족구조의 변화가 반드시 기능의 저하를 가져온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 종적으로 더 많은 가족 내 세대가 생존하는 만큼, 활동적인 노년기에는 잠재되어있던 지원의 원천으로서의 가족관계망이 필요시 활성화되어 작동할 가능성도 있다. 기존의 노년기 세대관계 및 돌봄관련 연구에 나타나는 서구의 대표적 관점으로서 잠재 가족 매트릭스(Latent Kin Matrix) 이론은 인구고령화 등으로 인해 교류의 가능성이 있는 세대가 점점 늘어날 수 있으며, 이는 세대 관계를 끊임없이 구성하고 재구조화 해야하는 필요와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 주목한다(Riley, 1983). 이 이론에서 강조하는 가족 관계망의 특성은, 개인에 따라 비록 평상시에는 기능하지 않더라도 유사시에 지원의 원천으로서의 가족의 기능이 활성화되고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종의 잠재된 가족 관계망의 기능적 역할은, 위기가 도래하지 않는 경우 수면위로 명확하게 관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론적 논의에 그쳤을 뿐, 실증연구는 매우 부족하였다.

이러한 중에 2020년에서 2022년 약 2년간 우리나라에서의 급속한 코로나19 확산과 이로 인한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었다. 시기에 따라 비록 차이는 있으나, 이 당시 가족원을 제외한 사회적 접촉이 상당 부분 제한을 받게 되었다.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이러한 조치와 사적 만남을 자제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다른 한편으로는 관계적 자원이 부족한 개인의 경우 외로움이나 고독감에 더욱 취약하게 만들었다. 국내 종단자료를 활용한 연구는 코로나 19로 인해 노인의 우울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는데, 가족 모임이 줄어든 노인의 경우 우울 위험이 더 높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Oh et al., 2023). 게다가 노년기 대표적인 사회적 참여의 장으로서 경로당이나 복지관 등이 감염병 확산의 예방 차원에서 문을 닫음으로써, 외

로움이나 고독감에 대처하기 위한 정서적 지원이라든가 장보기나 은행업무 등 도구적 지원 등의 필요를 더욱 부각시켰다. 이러한 점에서, 이 당시 수집된 가족관계와 정신건강 관련 자료는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 관계 및 지원의 원천으로서 가족 내 세대관계가 어떻게 작동하고 기능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가족 기능 측면에서 노부모 부양이나 돌봄에 대한 가치관의 급격한 약화와 가구의 구조 측면에서의 1인가구 증가나 자녀와 동거세대의 감소는 위기 상황에서 한국의 가족 기능의 약화를 여실히 드러내는가, 혹은 여전히 중요한 자원으로서 가족의 중요성을 보여주는가? 이때, 노년기 집단 간 세대간 차이는 어떠하며, 이러한 차이는 정신건강에 유의한 차이를 가져오는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 연구는 코로나 19가 한창인 2021년 제주지역 노인을 대상으로 가족관계의 변화와 정신건강에 대해 조사한 설문자료를 활용하여 세대간 결속도 유형화 및 우울감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특히, 세대관계의 작동 양상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다수 자녀와의 관계 변화에 대한 자료가 필수적인데, 집단적 모임이 제한을 받는 경우 자녀 간 역할 분담의 문제라든가 노인 부모 입장에서 결속도에 따른 선택의 차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대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자녀 중 이른바 연구 대상 자녀 '연구 대상 자녀'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으며, 다자녀를 고려한 세대 간 관계 유형화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하였다. 특히, 코로나 19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세대관계가 다자녀 간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그리고 이러한 패턴이 노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이에 이 연구는 평상시에는 동면(dormant)해 있을지라도, "필요시 친한 가족관계가 활성화되고 혹은 강화될 수 있는 잠재성을 제공하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관계망"(Riley, 1983, p. 441)으로서의 잠재 가족 매트릭스 이론에 기반하여, 코로나 19가 한창이던 2021년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자녀와의 관계 패턴을 살펴보고, 다자녀와의 세대관계 패턴에 따라 노인의 우울감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 연구는, 세대 관계의 다측면을 개념적화 한 세대 간 결속도 모델(Bengtson & Roberts, 1991)의 틀에 기반하여 노인 부모와 자녀와의 거주지 근접성이나 자원의 교환 뿐 아니라 대면, 전화, 디지털 접촉과 정서적 친밀감을 두루 고려하여 각각의 측면을 지표로 활용하여 결속도의 패턴을 자녀별로 유형화한다는 점에서 보다 면밀한 세대 관계 분석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세대간 결속도 모델

"가족은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변화하는 것이다."에 대한 담론에 대해, Popenoe(1993)는 1960년에서 1990년 사이 30년간의 미국 센서스 자료를 분석해 인구학적, 제도적, 문화적 측면에서 미국 가족은 쇠퇴하고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하지만 과학적이고도 일견 도전적으로 보이는 이 담론은 다른 학자들에 의해 비판받았다 (Bengtson, 2001; Bengtson et al., 2002). 그런데, 비록 만혼화, 이혼 증가, 1인 가구 증가 등 가족의 형성에 대한 지체나 해체와 재구성을 통한 구조적 측면의 변화가 관찰되지만, 여전히 가족이 많은 측면에서 기능하고 있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가족 관계와 기능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검증할 수 있는 틀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세대간 결속도 모델(intergenerational family solidarity model)은

가족 내 부모자녀 간 결속의 정도를 구조적(동거를 포함하는 부모와 자녀와의 거주지의 지리적 거리), 기능적(지원의 수혜와 제공), 애정적(정서적 친밀감), 합의적(가치관 유사성), 연합적(대면접촉, 전화 연락 등), 규범적(부양에 대한 의식) 차원으로 나누어 개념화하고(Bengtson & Roberts, 1991), 이를 통해 미국 가족의 구조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세대간 결속도의 제 측면에서 가족의 기능적 중요성이 여전함을 밝힌 바 있다. 이 연구는 상기의 맥락에서 한국사회 가족구조의 급격한 변화나 부양 및 돌봄에 대한 가치관 변화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여전히 중요한 기능적 단위인가에 대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 세대 결속의 다차원성을 고려하는 상기 모델을 차용하고자 한다.

서구 연구에서는 물론이고, 상결속도 모델은 한국의 중노년기 세대관계 연구에도 폭넓게 인용되어왔다(김명일, 김순은, 2019; 안정신 등, 2015; 정규형 등, 2013; 정순둘, 이루리, 2014). 하지만 대부분의 국내 선행연구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자녀 중 일인을 임의로 택하여 노인 부모와 성인 자녀 간 결속을 측정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방식은 자녀 수가 일인 내외인 경우 전체적인 노인 부모 및 자녀 간 세대간 결속을 탐색하는데 무리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세대간 관계를 전반적으로 조망하는데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 노인실태조사에 나타난 노인의 자녀수를 살펴보면, 조사에 참여한 노인은 약 3.1명의 자녀와, 4.9명의 손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정경희, 2018), 현대 한국사회 노인의 노년기 가족관계망을 조망하기 위해서는 다자녀에 대한 고려가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간 결속도 모델의 다차원성을 고려한 국내 연구에서 이 개념을 다자녀와의 관계에 적용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노인의 입장에서 가장 많이 접촉한 순위부터 최대 3인의 자녀에 대한 결속도의 각 차원에 대한 자료를 통해 각각의 세대간 결속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2. 노년기 세대간 결속도 유형과 우울감

부모와 성인 자녀의 이자(dyadic) 관계에 있어 각 차원의 세대간 결속도 정도를 측정하는 연구는, 이후 관계에서의 집단 간 차이에 대한 강조에 따라 유형화 연구로 이어졌다. 하버드 대학과 서던캘리포니아대학의 협동연구를 통해 미국 은퇴자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 AARP)에 의해 수행된 미 전역 1,500명 성인자료를 활용한 연구에서, 애정적, 합의적, 구조적, 연합적, 기능적 결속도 지표를 바탕으로 총 5가지의 결속도 유형이 도출되었다(Silverstein & Bengtson, 1997). 친밀한(tight-knit), 사회적인(sociable), 친밀하나 거리가 있는(intimate but distant), 의무적인(obligatory), 거리가 있는(detached)의 유형을 도출한 이 연구는, 세대간 결속도의 집단 내 이질성을 보여 준 연구로 이후 다양한 나라의 성인자녀와 노부모의 세대간 결속도 유형화 연구로 확산되었다.

유럽에서는 상기 모델을 이론적 기반으로 유럽 건강, 노화 및 은퇴 서베이(Survey of Health, Ageing and Reirement in Europe: SHARE[1])을 활용하여 노년기 세대간 결속도를 유형화 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 연구는 이른바 내리사랑 가족주의(descending familialism), 부양 가족주의(ascending familialism), 원거리 지원형(supportive-at-distance), 자율성(autonomous)을 도출하였다(Dykstra & Fokkema, 2011). 아시아에서는 중국 연구가 대표적으로, 중국 자료를 활용한 연구에서 미국연구와 유사점과 차이점이 공존하는 다섯 가지 유형이 제안되었는데, 친밀한(tight-knit), 근거리에 살지만 불화가 있는(nearby but discordant), 멀리살며 불화가 있는(distant discordant), 멀리살면서 호혜적인(distant reciprocal), 멀리살면서 부양하는

1) SHARE는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의 11개국을 포함함.

(distant ascending) 유형이 그것이다(Man, Chi, & Silverstein, 2012).

이후 한국 자료를 활용한 노인 부모와 성인자녀 관계 유형화 연구가 이루어졌다. 노인 부모와 자녀는 전통적인(traditional), 호혜적인(reciprocal), 약한(weak) 유형으로 나타났다(Park et al., 2005). 상기 연구가 세대간 결속도 모델에서의 구조적, 기능적, 규범적 측면만을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있는바(이재림 등, 2019), 보다 최근자료를 활용한 한국 연구에서는 친밀한(tight-knit), 거리가 있으나 디지털로 연결된(distant-but-digitally-connected), 갈등적인(conflictual), 독립적인(independent)의 네 가지 유형을 발견한 바 있다(Hwang, Min, et al., 2024). 두 연구 모두 공통적으로 한국의 성인자녀와 부모의 세대간 결속도 유형을 연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과 2024년 연구에서 도출된 유형의 수나 세부 내용에서의 차이가 관찰된다. 연구결과에서 나타나는 차이의 원인 중 하나는, 분석에 있어서 갈등적 측면 등 고려된 결속도의 하위차원이 상이하다는 점 때문일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코로나 19와 같은 특수 상황과 가치관의 변화가 이러한 패턴에 기여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당시 동거하지 않는 경우 자녀와의 대면 접촉이 매우 제한되었다는 점, 그리고 점차 세대 간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분위기에 따라 '거리가 있으나 디지털로 연결된' 혹은 '독립적인 유형'이 도출되었을 가능성이 그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거리가 있으나 디지털로 연결된 유형'은 일종의 차선으로 나타난 세대간 결속도의 적응적 유형일 수 있다.

실제로,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국가와 관계 없이 결속도의 제 측면에서 높은 수준을 보이는 '친밀한'유형의 경우 가장 낮은 우울감을 발견하였는데 반해, 미국 자료를 활용한 연구에서 코로나 19기간의 경우 대면 접촉이 현저히 낮은 경우라도 자녀와의 디지털 접촉이 빈번한 여성 노인의 경우도 제 결속도 영역이 낮은 유형에 비해 유의하게 우울감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Hwang, Hadi, et al., 2024). 전염병 등으로 인해 정부 정책이나 사회적 분위기 등으로 인한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대면 접촉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가족관계가 어떤 식으로 적응적으로 작동하고, 이것이 개인의 정신건강에 주는 영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종합하면, 결속도 모델에 근거하여 세대 간 결속도를 유형화하는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었으나, 유형에는 국가별로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한다. 특히, 코로나 19시기 노년기 세대간 결속도를 유형화 한 최근의 연구에서는, '거리가 있으나 디지털로 연결된 유형'이 발견되었는데 이러한 유형이 국내에서도 발견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더불어 이러한 유형이 기존의 '친밀한 유형'과 마찬가지로 '거리가 있는 유형'에 비해 우울감이 유의하게 낮은지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3. 코로나 19시기 세대 관계의 특성: 잠재 가족 매트릭스 이론과 다자녀 고려

가족 위기상황에서 나름의 방식으로 적응적 대처를 보여줄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뒷받침해주는 관점 중 하나가 잠재 가족 매트릭스 이론(Riley, 1983)이다. 이 이론의 핵심 개념은 가족 관계는 고정되어있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변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변화는 이혼이나 재혼 등으로 인한 인구학적 변화, 평균수명 연장 등으로 인한 세대관계의 연장, 세대관계 유지에서의 자발성 측면 등으로 인한 가족 구조의 집단 내 다양성에 기인한다. 이 이론의 핵심 주장에 따르면 가족 구성원은 자원의 원천으로서 장시간 동면할 수 있으며, 필요 발생 시 다시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이다(Riley & Riley, 1993; Buyukkececi & Cineli,

2024). 이러한 세대관계의 이질성(heterogenity)은 평균적 접근 방식보다는 유형화 분석이 적절하며, 잠재성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특히 지원에 대한 필요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지는 시기에 가족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에 유용한 관점을 제공한다.

한편, 상기의 이론에서 강조하는 세대 관계는 단순 이자관계를 넘어서는 그물망(web)적 특성에 주목한다(Riley & Riley, 1983). 부모-자녀 세대 관계는 기본적으로 다자관계를 설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자녀 간 관계 이외에 다수의 자녀에 대한 고려가 실증분석에서 이루어진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노년기에는 가족 내 돌봄 등의 지원에 대한 필요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다자녀를 가진 부모의 경우 어떤 자녀로부터 어떤 지원을 주고 받을 것인지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 지는 시기로(Connidis & Barnett, 2018), 상기 맥락에서 노년기 자녀와의 지원교환의 패턴에는 개인차가 크며 이는 노년기 정신건강에 중요하다는 점에서, 상기 연구주제의 분석에서 다자녀에 대한 고려는 특히 중요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코로나 19가 한창이던 2021년 자료를 활용하여, 제주 노인의 성인자녀와의 세대관계 결속도의 다차원성을 고려(구조적, 기능적, 애정적, 연합적 결속)하여 세대 간 결속도를 유형화 하고, 각 유형에 따라 노인의 우울감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때 노인의 입장에서 가장 빈번히 접촉한 자녀를 기준으로 최대 3인의 자녀와의 결속도를 개별적으로 분석에 고려하고자한다.

요컨대,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통해 개인의 활동이 급격히 제한된 상황으로 인해 가족 내 지원의 필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노인 부모의 자녀와의 관계 패턴은 개인에 따라 어떻게 달리 나타나는지와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개인과 가족단위의 적응적 맥락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노년기 정신건강 및 고립과 소외관련 정책 수립에 있어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시기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의 성인자녀(가장 많이 접촉하는 자녀, 두 번째로 많이 접촉하는 자녀, 세 번째로 많이 접촉하는 자녀)와의 세대간 결속도 유형은 어떠한가?

둘째, 코로나19시기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의 성인자녀와의 세대간 결속도의 서로 다른 유형과 우울감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Ⅲ. 연구 대상 및 방법

1.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이 연구의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코로나 19 시기인 2021년 가을 65세 이상으로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노인 700명을 대상으로 수집된 대면설문조사이다. 설문 응답자는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할당표집을 실시하였으며, 내용의 신뢰성을 위해 인지기능 장애 등으로 인한 의사소통에 큰 어려움이 없는 지역사회 거주 노인으로 제한하였으며, 조사원이 개별 노인을 방문하여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조사를 위해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승인번호: JNU-IRB-2021-070-001). 참여자에게 연구목적과 연구내용에 대한 설명 및 동의서를 받았으며, 설문 중이라도 응답자가 참여를 원치 않는 경우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 연구에서 주목하는 자녀와의 결속도 관련 문항은 생존자녀가 있으면서, 접촉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최대 3명) 응답할 수 있기에, 적어도 1명 이상의 자녀와 접촉한다고 응답한 668명을 기초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인구학적 특성 및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는 <표 1>과 <표 2>에 각각 제시하였다.

2. 주요 변수의 구성

1) 세대간 결속도

세대간 결속도는 노인이 응답한 성인 자녀와의 결속도로 측정하였으며, 가치관의 유사성과 부양에 대한 인식에 해당하는 합의적 결속과 규범적 결속을 제외한, 설문을 통해 수집된 애정적, 연합적, 구조적, 기능적 측면의 결속도의 네 차원을 고려하였다. Silverstein과 Bengtson(2019)의 세대종단연구(the Longitudinal Study of Generations)에서 활용되는 세대간 결속도 측정 문항의 일부를 활용하였으며, 연구자간 번역-재번역 과정(van de Vijver & Leung, 1997)을 통해 한국어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가장 많이 접촉한 자녀, 두 번째로 많이 접촉한 자녀, 세 번째로 많이 접촉한 자녀순으로 최대 세 자녀까지 각 차원의 세대간 결속도에 대해 응답하도록 설계되었다.

애정적 결속도(affectual solidarity)는 해당 자녀와의 관계에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해 “매우 불만족”(1)부터 “매우 만족”(5)의 응답범주 중 선택하는 단일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연합적 결속도(Associational solidarity)는 해당 자녀와 얼마나 접촉하는지에 대해 만남, 전화, 디지털 방식의 세 가지 문항에 대해 “전혀 하지 않음” (1)부터 “매일” (6)의 응답범주를 통해 측정되었다. 구조적 결속도(Structural solidarity)는 해당 자녀와 대략 어느정도 떨어져 사는지에 대해 질문하여 “2시간 이상 운전”(1)에서부터 “동거” (5)의 응답범주 중 선택하는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기능적 결속도(Functional solidarity)는 이분변수를 활용하여 해당자녀로부터 지원을 주거나 받는 경우에 대해 “예” (1), “아니오” (0)로 응답하도록 설계되었다. 세대간 지원의 종류는 도구적 지원과 금전적 지원으로 측정하였으며, 두 종류 중 하나라도 받는다고 응답한 경우는 자녀로부터 지원을 제공받는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으로 코딩하였다. 자녀로부터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도 상기의 예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으로 코딩하였다.

2) 우울감

우울감은 Short Form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SGDS; Yesavage & Sheikh, 1986) 버전의 15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절망적이라는 느낌이 자주 드십니까?”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응답은 “예” (1) 혹은 “아니오” (0)로 구성되었다. 긍정형으로 물어본 5개 문항은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크론바하 알파는 .90이었다.

3) 통제변수

노인 부모의 연령, 성별, 교육수준, 결혼지위, 소득수준, 그리고 주관적 건강상태를 통제변수에 포함하였다. 연령은 연속형 변수로 코딩하였고 성별은 “남성”은 0, “여성”은 1로 코딩하였다. 교육수준은 무학(1) 부터 대학원(7)의 범주에 대해 코딩하였다. 결혼지위는 결혼한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으로 코딩하였으며, 한달 가구소득은 100만원 미만(1)부터 1000만원이상(6)의 범주에 대해 코딩하였다. 주관적 건강은 평소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판단으로 매우 나쁜 경우 1, 매우 좋은 경우 5로 코딩하였다.

3. 분석방법

이 연구의 첫 번째 연구문제를 위해 Latent Gold 6.0 (Vermunt & Magidson, 2021)를 활용하여 가장 많이 접촉하는 자녀, 두 번째로 많이 접촉하는 자녀, 세 번째로 많이 접촉하는 자녀에 대해 각각에 대한 잠재 계층 분석(Latent Class Analysis)을 실행하였다. 잠재 계층 분석에서 세대

간 결속도는 주요 변수의 구성에 기술된 대로 네 가지 측면의 결속도로 구성된 총 일곱 개의 지표(애정적 결속도, 연합적 결속도[대면, 전화, 디지털], 구조적 결속도, 기능적 결속도[지원 제공, 지원 수혜])가 사용되었다. 기능적 결속도를 제외한 전 결속도 지표가 서열 변수(ordinal items)로 측정 되었기에, 잠재 계층 분석 전에 잠재 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을 먼저 수행하였다. 잠재 프로파일 분석에서는 최적 잠재 프로파일이 도출되지 않았는데, Vasilenko(2022)는 서열 변수의 왜도가 높은 경우 응답의 스펙트럼을 폭넓게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분형 변수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이에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몇가지 결속도 지표의 왜도가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표 2> 참조). 이에 애정적 결속도의 경우 낮은 집단(1=매우 불만족부터 3=보통)과 높은 집단(4=만족부터 5=매우 만족)으로, 연합적 결속도에 대해 낮은집단(1=전혀 아니다부터 3=일년에 서너번)과 높은집단(4=매달부터 6=매일)으로, 구조적 결속도의 경우 낮은집단(1=차로 2시간 이상부터 2=차로 2시간 정도)과 높은집단(3=차로 30분 정도부터 5=동거)으로 나누어 이분변수화하였다. 이상의 이분변수를 활용하여 잠재 계층 분석을 수행하였다. 최적 잠재 계층을 선택은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BIC), the Consistent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CAIC), 와 entropy를 활용하였고, BIC와 CAIC 값이 최소이면서, entropy 값이 .08 이상인 경우를 최적모델 선택의 기준으로 삼았다(Nylund-Gibson & Choi, 2018).

Ⅳ. 연구 결과

1. 기초통계분석

주요 변수 중 인구학적 변수 기술통계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노인 부모의 평균 연령은 76세로 최솟값은 66, 최대값은 94였다. 전체의 56%는 여성이었고, 44%는 남성이었다. 혼인상태인 응답자는 전체의 58%였다. 노인 부모의 월 평균 소득은 1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가장 많이 접촉하는 자녀, 두 번째로 많이 접촉하는 자녀, 세 번째로 많이 접촉하는 자녀에 대해 각각 668명, 627명, 456명이 응답하였다.

세대간 결속도 변수의 기초통계 결과는 <표 2>에 나타나있다. 전반적으로 노인 부모는 접촉의 우선순위와 관계없이 성인자녀와 빈번한 전화 연락을 하고 있었으며, 높은 애정적 결속도를 보였다.

2. 잠재 계층 분석 (Latent Class Analysis)

잠재 계층 분석 결과와 모형 적합도는 <표 3>에 제시하였다. 모형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가장 많이 접촉하는 자녀, 두 번째로 많이 접촉하는 자녀, 세 번째로 많이 접촉하는 자녀 집단 모두 두 집단 모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별 응답 및 잠재 계층 확률은 <표 4>에 제시하였다. 각 문항은 아이템 확률 .5를 기준 컷오프로 활용하여 (Hwang et al., 2022), 두 계층으로 구분했는데, 첫 번째 계층을 “친밀한(tight-knit)”집단으로 명명했다. 이 계층은 디지털을 통한 접촉과 지원 제공(가장 많이 접촉하는 자녀의 84%, 두 번째로 많이 접촉하는 자녀의 65%, 세 번째로 많이 접촉하는 자녀의 45%)을 제외한 모든 결속도 문항의 아이템 응답 확률이 .5 이상이었다. 두 번째 계층은 “친밀하나 거리가 있는(intimate-but-distant)” 집단으로 명명했다. 이 계층의 경우 애정적 결속과 연합적 결속 중 전화 연락의 아이템 응답이 .5 이상이었다(가장 많이 접촉하는 자녀 집단의 16%, 두 번째로 많이 접촉하는 자녀 집단의 35%, 세 번째로 많이 접촉하는 자녀 집단의 53%).

<표 1> 인구학적 변수 기술통계

변수	범위	*M (SD)*	n (%)
노인 부모 (n = 668)			
연령	66 - 94	76.11 (6.65)	
성별			
남성			280 (43.1)
여성			380 (56.9)
교육수준	1 - 7	2.70 (1.30)	
한달 가구소득	1 - 6	1.66 (0.74)	
결혼지위			
혼인			387 (57.9)
사별			236 (35.3)
이혼			25 (3.7)
기타			20 (3.1)
건강상태	1 - 5	3.30 (1.00)	
우울감	0 - 1	0.12 (0.20)	
가장 많이 접촉한 자녀 (n = 668)			
연령	14 - 72	47.76 (7.84)	
출생순위			
첫째 자녀			342 (51.2)
둘째 자녀			168 (25.1)
셋째 자녀			88 (13.2)
넷째 자녀 이상			70 (10.5)
성별			
아들			402 (60.2)
딸			266 (39.8)
지리적 근접성	1 - 5	3.13 (1.24)	
두 번째로 많이 접촉한 자녀 (n = 627)			
연령	13 - 68	47.47 (7.74)	
출생순위			
첫째 자녀			176 (28.1)
둘째 자녀			286 (45.6)
셋째 자녀			103 (16.4)
넷째 자녀 이상			62 (9.9)
성별			
아들			307 (49.0)
딸			320 (51.0)
지리적 근접성	1 - 5	2.35 (1.08)	

세 번째로 많이 접촉한 자녀 (n = 456)	28 - 68	48.38 (7.19)	
연령			
출생순위			
첫째 자녀			83 (18.2)
둘째 자녀			121 (26.5)
셋째 자녀			190 (41.7)
넷째 자녀 이상			62 (13.6)
성별			
아들			205 (45.0)
딸			251 (55.0)
지리적 근접성	1 - 5	1.95 (0.94)	

<표 2> 세대간 결속도 변수 기술통계

변수		가장 많이 접촉하는 자녀 (n = 668)	두 번째로 많이 접촉하는 자녀 (n = 627)	세 번째로 많이 접촉하는 자녀 (n = 456)
세대간 결속도				
애정적 결속도: M (SD)	1 - 5	4.48 (.80)[a]	4.37 (.84)[a]	4.36 (.83)
낮은 집단: n (%)		106 (15.9)	123 (19.6)	92 (20.2)
높은 집단: n (%)		562 (84.1)	504 (80.4)	364 (79.8)
연합적 결속도				
대면 접촉: M (SD)	1 - 6	4.66 (1.27)[a]	3.76 (1.38)	3.14 (1.39)
낮은 집단: n (%)		103 (15.4)	218 (34.8)	227 (49.8)
높은 집단: n (%)		565 (84.6)	409 (65.2)	229 (50.2)
전화 연락: M (SD)	1 - 6	5.12 (1.03)[a]	4.90 (0.89)[a]	4.70 (.92)[a]
낮은 집단: n (%)		33 (4.9)	29 (4.6)	31 (6.8)
높은 집단: n (%)		635 (95.1)	598 (95.4)	425 (93.2)
디지털 접촉: M (SD)	1 - 6	1.50 (1.34)[a]	1.48 (1.29)[a]	1.34 (1.11)[a]
낮은 집단: n (%)		583 (87.3)	547 (87.2)	415 (91.0)
높은 집단: n (%)		85 (12.7)	80 (12.8)	41 (9.0)
구조적 결속도: M (SD)	1 - 5	3.12 (1.24)	2.34 (1.06)	1.94 (.93)
낮은 집단: n (%)		211 (31.6)	333 (53.1)	312 (68.4)
높은 집단: n (%)		457 (68.4)	294 (46.9)	144 (31.6)
기능적 결속도				
지원 수혜: M (SD)	0 - 1	.70 (.60)	.46 (.54)	0.33 (0.50)[a]
낮은 집단: n (%)		249 (37.3)	351 (56.0)	310 (68.0)
높은 집단: n (%)		419 (62.7)	276 (44.0)	146 (32.0)
지원 제공: M (SD)	0 - 1	0.3 (.20)[a]	0.01 (0.13)[a]	0.01 (0.06)[a]
낮은 집단: n (%)		646 (96.7)	619 (98.7)	454 (99.6)
높은 집단: n (%)		22 (3.3)	8 (1.3)	2 (0.4)

a = 왜도가 높음.

<표 3> 잠재 계층 분석과 모형적합도

	가장 많이 접촉하는 자녀 (n = 668)			두 번째로 많이 접촉하는 자녀 (n = 627)			세 번재로 많이 접촉하는 자녀 (n = 456)		
계층 (n)	BIC	CAIC	Entropy	BIC	CAIC	Entropy	BIC	CAIC	Entropy
1	3885.42	3892.42	-	4002.30	4009.30	-	2802.14	2809.14	-
2	**3621.11**	**3636.11**	**.88**	**3638.87**	**3653.87**	**.96**	**2586.05**	**2601.05**	**.85**
3	3647.54	3670.54	.56	3670.32	3693.32	.69	2617.75	2640.75	.67
4	3682.37	3713.37	.68	3701.93	3732.93	.63	2655.11	2686.11	.68
5	3715.46	3754.46	.59	3743.69	3782.69	.66	2698.22	2737.22	.67
6	3756.63	3803.63	.65	3790.92	3837.92	.62	2737.04	2784.04	.69

가장 적합한 모형을 진하게 표시함.
BIC =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CAIC = Consistent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표 4> 문항 반응과 잠재 계층 확률

	가장 많이 접촉하는 자녀 (n = 668)		두 번째로 많이 접촉하는 자녀 (n = 627)		세 번재로 많이 접촉하는 자녀 (n = 456)	
문항 반응 확률	친밀한 (Intimate)	친밀하나 거리가 있는 (Intimate-but-distant)	친밀한 (Intimate)	친밀하나 거리가 있는 (Intimate-but-distant)	친밀한 (Intimate)	친밀하나 거리가 있는 (Intimate-but-distant)
애정적 결속도	**.88**	**.63**	**.88**	**.65**	**.88**	**.71**
연합적 결속도						
대면 접촉	**.99**	.07	**.99**	.01	**.99**	.07
전화 연락	**.96**	**.87**	**.98**	**.89**	**.99**	**.87**
디지털 접촉	.10	.23	.10	.17	.07	.10
구조적 결속도	**.79**	.11	**.67**	.09	**.58**	.07
기능적 결속도						
지원 수혜	**.71**	.11	**.60**	.14	**.55**	.11
지원 제공	.03	.01	.01	.01	.01	.01
잠재 계층 확률	.84	.16	.65	.35	.47	.53

문항 반응 확률이 .5 이상인 경우 진하게 표시함.

3. 다변량 회귀분석

각 자녀와의 세대간 결속도 유형에 따른 우울감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다변량 회귀분석(참조집단: 친밀한)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에 나타나있다. '친밀하나 거리가 있는' 잠재 계층에 속하는 노인 부모는 '친밀한' 계층에 속하는 이들에 비해 가장 많이 접촉하는 자녀 집단 (b = -.06, p < .01), 두 번째로 많이 접촉하는 집단(b = .03, p < .05)에 비해 우울감이 유의하게 높았다. 그러나 세 번째로 많이 접촉하는 집단의 경우 노인 부모의 우울감 수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V. 결론 및 논의

가족의 해체와 재구성 및 1인가구 증가 등으로 인한 가족구조의 변화와, 부모 부양 및 돌봄에 대

<표 5> 잠재 계층 멤버십과 노인 부모의 우울감간의 관계

	가장 많이 접촉하는 자녀 (n = 668)		두 번째로 많이 접촉하는 자녀 (n = 627)		세 번째로 많이 접촉하는 자녀(n = 456)	
변수	b (SE)	Z-value	b (SE)	Z-value	b (SE)	Z-value
잠재 계층 멤버십						
친밀한 (ref.)	-	-	-	-	-	-
친밀하나 거리가 있는	.06 (.02)	2.82**	.03 (.02)	2.35*	.02 (.02)	1.51
통제변수						
연령	.00 (.01)	.56	.00 (.01)	.74	.00 (.01)	.85
여성 (ref: 남성)	-.02 (.02)	-1.24	-.01 (.02)	-.97	-.02 (.02)	-1.00
교육수준	-.01 (.01)	-.85	-.01 (.01)	-.77	-.01 (.01)	-1.13
한달 가구 소득	-.01 (.01)	-.34	-.01 (.01)	-.50	.00 (.01)	.19
결혼 (ref: 기타)	-.03 (.02)	-1.82	-.02 (.02)	-1.49	-.01 (.02)	-.88
주관적 건강상태	-.11 (.01)	-11.86***	-.11 (.01)	-11.43***	-.11 (.01)	-9.35***

ref. = 참조집단
*p < .05. **p < .01. ***p < .001.

한 가치관의 변화는 현대 한국사회의 중요한 사회적 변화이다. 이러한 변화가 친밀감과 자원 제공의 원천으로서의 가족 역할의 쇠퇴를 방증하는가,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족은 위기상황에서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사회적 제도이자 기관으로 작동하는가에 대한 질문은 이러한 맥락에서 중요한 연구문제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확산 등의 사회적 위기상황에서 친밀감과 지원의 원천으로서 간주되어 온 가족 내 세대관계가 어떻게 작동하며, 이것이 노인의 우울감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다자녀 측면을 고려하여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집합금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던 시기 제주 노인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제주거주 노인의 성인자녀와의 세대간 결속도 유형을 살펴보고 각 유형과 우울감과의 관련성을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특히, 세대관계 결속도 모델의 구조적, 기능적, 애정적, 연합적 결속의 다차원을 고려하고, 노인의 입장에서 가장 빈번히 접촉한 자녀를 기준으로 최대 3인의 자녀와의 결속도를 유형화 함으로써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제고하였다. 이를 통해 노년기 우울과 관련된 정신건강 및 고립 및 소외관련 노인 및 가족 복지 정책 수립에 있어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와 이를 통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 거주노인의 코로나19시기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유형은 가장 많이 접촉하는 자녀부터 세 번째로 많이 접촉하는 자녀에 걸쳐 공통적으로 두 가지의 결속도 패턴을 보여주었다. 첫 번째 패턴은 '친밀한 유형'으로,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애정적 결속과 연합적 결속 중 대면 접촉과 전화연락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두 번째 패턴은 '친밀하나 거리가 있는 유형'으로 애정적 결속과 전화연락의 가능성은 높으나, 지원의 교환과 같은 기능적 결속도와 거주지 거리의 구조적 결속이 매우 낮았다. 두 유형은 미국 자료를 활용하여 코로나19시기 세대간 관계를 유형화 한 연구(Hwang, Hadi, et al., 2024)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유형이라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유사성을 보인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에서 밝혀진 '친밀하나 디지털로 연결된 유형'이라던가 '거리가 있는 유형'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전 영역에서 결속도의 수준이 낮은 유형이 나타나

지 않은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을 고려할 수 있다. 이 연구의 경우 접촉 빈도에 따른 자녀는 노인의 자기보고 응답에 따른 것으로, 본인의 선호에 따라 차례로 가장 많이 접촉하는 자녀, 두 번째로 많이 접촉하는 자녀,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이 접촉하는 자녀를 골라서 응답하였다. 따라서, 만약 자녀가 세명보다 많으면서 동시에 자녀 중 전 영역에서 결속도가 매우 낮은 경우, 이 자녀는 응답범주에 들지 않아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세대간 결속도 모델이 갈등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적 관점(Lüscher & Pillemer, 1998)에서 이후 추가된 세대간 결속도의 부정적 측면으로서의 갈등에 대한 문항이 추가되었는데, 이 연구에서는 갈등을 포함하지 않은 종래의 결속도 측면만을 고려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러한 측면이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합의적 결속도 및 규범적 결속도와 더불어 갈등적 측면을 함께 고려하는 분석이 실시된다면, 선행연구와의 차이점이 있는 본 연구 결과에 대한 풍부한 해석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한국 데이터를 활용한 기존 선행연구에서 코로나 19시기 주요한 패턴으로 제시된 '친밀하나 디지털로 연결된 유형'(Hwang, Min, et al., 2024)이 나타나지 않은 점도 중요한 차이점이다. 이 부분은 제주도라는 지역적 특성이 기여했을 가능성도 있겠으나, 선행연구에서는 126명의 부모와, 123명의 자녀로 이루어진 이자관계 자료를 활용하였는데, 40대 부모를 포함하여 부모의 평균연령이 약 59세였다. 중노년을 포괄했다는 측면에서, 디지털 기기와 SNS등 미디어 활용에 필요한 디지털리터러시가 65세 이상 노인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월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동거여부를 떠나 약 40% 정도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 영상통화를 한다고 응답했다는 점도 이러한 점을 뒷받침한다. 이에 반해 본 연구의 참여자는 65세 이상 지역사회 거주 노인으로 비례 할당표집에 따라 연령범위가 66세에서 94세로 평균연령은 약 76세였다. 우리나라의 디지털리터러시에 있어서 연령집단 간 그리고 연령집단 내 편차가 상당하다는 점이 상기의 연구 결과 간 차이를 일견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코로나 19시기 제주지역 거주 노인의 성인자녀와의 세대간 결속도의 유형과 우울감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연령, 성별, 소득, 결혼상태, 교육수준, 주관적 건강상태의 영향력을 고려한 뒤에도 친밀한 집단에 비해 거리가 친밀하나 거리가 있는 계층의 우울감이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높은 세대간 결속도가 정신건강에 긍정적이라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Lawrence et al., 1992; Tosi & Grundy, 2019; Hwang, Hadi, et al., 2024). 친밀한 유형이나 친밀하나 거리가 있는 유형 모두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애정적 결속이나 전화연락 측면의 합의적 결속이 공통적으로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결속 측면에서 멀리 떨어져 산다는 점과 이로인해 대면접촉이 낮다는 점이 이러한 결과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유형은 기능적 결속에 있어서 친밀한 유형에 비해 자녀로부터 지원을 받는 확률이 낮은 것으로 보고된다. 기존 연구에서는 비록 떨어져 산다 할지라도 애정적 결속이 충분히 높은 유형의 경우, 노인집단의 우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 19로 인해 대면접촉이 극도로 제한되어있고 복지관에서의 공동식사 등을 비롯한 집단활동이 사실상 멈춘 상태에서는, 높은 애정적 결속에도 불구하고 가까이에서 수시로 접촉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면 우울감에 긍정적 효과를 주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가장 많이 접촉하는 자녀, 두 번째로 많이 접촉하는 자녀, 세 번째로 많이 접촉하는 자녀를 구분해서 유형화하고, 우울감에 대한 회귀분석을 개별적으로 실시하였다. 이에 따르

면, 가장 많이 접촉하는 자녀와 두 번째로 많이 접촉하는 자녀까지는 친밀한 유형과 친밀하지만 거리가 있는 유형간에 우울감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으나, 세 번째로 많이 접촉한 자녀에서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관련 연구에서 다자녀에 대한 고려가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노인 부모 입장에서 보다 빈번하게 접촉하는 자녀와의 세대간 결속도 패턴이 정신건강에 유의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에서 가장 많이 접촉하는 자녀의 경우, 두 유형 중 친밀한 유형에 속할 확률이 84%였으며, 두 번째로 많이 접촉하는 자녀는 65%, 세 번째로 많이 접촉하는 자녀는 47%로 나타났다. 만약 노인이 다수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별로 결속도 수준이 다양하다는 점에서 상호보완적일 수 있지만, 비록 한 자녀라도 결속도가 매우 높은 자녀가 존재하는 경우 노인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선행연구에서는 노년기에 비록 사회관계망의 크기가 축소된다 할지라도, 관계망의 질적 측면이 담보된다면 이러한 선택은 적응적일 수 있다고 제안한다(Carstensen, 2021). 이 연구의 응답자들은 대부분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자녀가 있으며, 그 중 가장 많이 접촉하는 자녀가 노인 부모와 동거하거나 근거리에 살면서 친밀감을 나누고 지원을 제공하는 집단에 속할 가능성을 의미하는 잠재 계층 확률이 .84로 나타난다는 것은 이러한 점에서 의미있는 결과이다. 가족은 위기 상황에서 중요한 사회적 자원이자, 친밀감에 기반을 둔 관계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노인복지 분야 서비스 및 정책적 함의와 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년기 디지털리터러시 수준은 코로나 19와 같은 상황에서 삶의 질에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중노년을 포함한 선행연구에서 비록 떨어져있더라도 디지털을 기반으로 결속도가 유지되는 경우 우울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주었다는 결과와 대조적으로, 65세 이상의 평균연령 76세의 고령층으로 이루어진 본 연구 참여자의 경우 주로 접촉하는 자녀와 애정적 결속이 높다 하더라도 전화연락만 높은 경우 우울감이 유의하게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디지털 접촉의 긍정적 영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동시에, 현재 후반기 노인 세대의 디지털리터러시가 낮은 점을 고려할 때, 이들에게 디지털리터러시 교육의 제공은 노인의 정신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참여자들은 제주 지역 거주 노인으로, 제주도는 2024년 12월부터 도내의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디지털배움터’ 운영을 계획하였다. 이 서비스는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과 같은 노인시설을 방문해서 스마트폰 사용법, 화상전화 사용법, 택시 호출 및 키오스크 등 일상생활 전반에 필요한 디지털 교육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향후 보다 이용자 친화적 접근을 위해,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필요한 대상을 직접적으로 발굴하는 것이 사업 수혜자 저변을 확대하고 효과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가장 많이 접촉하는 자녀와 비록 애정적 결속이나 전화 연락이 빈번하다 할지라도, 이들의 우울감은 대면 접촉 빈도가 높고 가까이 거주하면서 지원을 제공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 비해 우울감이 유의하게 낮았다. 이러한 점은 사회적 고립이나 고독사 관련 잠재군에 대한 복지 서비스 측면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비록 다수의 자녀가 있는 노인이라도, 가까이 거주하면서 대면접촉을 빈번히 하는 자녀가 없는 경우는 우울에 취약할 수 있다. 따라서 고립이나 사회관계망 관련 복지서비스 필요가 높은 취약노인의 발굴의 경우 자녀의 유무나 수 보다는, 실제 기능의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평소 노인이 건강하고 일상생활 능력 및 도구적 일상생활 능력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코로나 19와 같은 극단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의 상황이 아닌 경우 지역사회 내 사회참여를 통해 사회적 접촉이나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

다. 하지만, 자녀가 없거나 혹은 비록 자녀가 있더라도 지리적으로 멀리 사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고립이나 고독사 위험요소가 평시 드러나지 않더라도, 정책 가외성 측면에서, 혼자 살거나 가족과의 연고가 없는 노인들의 경우 대면접촉과 지원제공에 대한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일본의 경우처럼 유사시 긴급연락망 공유 등 지역사회 단위의 체계가 수립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연구는 코로나 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다자녀를 고려해 세대 간 관계를 유형화하여 노인의 성인 자녀와의 세대 관계의 패턴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실증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세대 간 결속도의 다측면을 고려하여 세대 관계의 서로 다른 유형에 따라 우울감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보인다. 이러한 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진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제주지역 자료를 활용했기에 타 지역으로의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는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이 연구는 노인 부모의 관점에서 세대관계를 측정하였기에, 기존 연구에서 밝혀진 세대간 관계에 대한 인식에서의 부모-자녀 세대의 의견차는 고려할 수 없었다. 비록 자기보고된 세대관계의 평가는 본인의 정신건강과의 관련성이 높을 수 있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부모와 자녀세대 각각에 대한 관계의 평가와 정신건강과의 관련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 연구는 코로나 19 기간동안 수집된 자료라는 점에서 연구 자료로서 시기적인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종단자료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전 시기와의 비교나 특정 세대간 결속도 유형과 우울감간의 관계의 장기적 지속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정보로는 제한점을 지닌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비록 세대간 결속도 모델에 바탕을 두고 네 가지의 결속도 차원을 분석에 고려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갖지만, 설문에 포함되지 않은 가치관의 유사성과 관련된 합의적 결속과 부양에 대한 의식을 고려한 규범적 결속은 고려하지 못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활동이 급격히 제한된 상황으로 인해 가족 내 지원의 필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노년기 세대관계 유형과 우울감 간의 관계를 살펴본 이 연구의 결과는, 위기상황에서 개인과 가족단위의 적응적 맥락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관련 서비스 제공과 정책 수립에 있어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김명일, 김순은 (2019). 노년기 부모자녀 결속 유형과 삶의 만족에 관한 연구: 도시 농촌 간 지역 비교 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39*(1), 145-167. https://doi.org/10.31888/JKGS.2019.39.1.145

안정신, 문정희, 정여진, 정영숙 (2015). 성인자녀가 지각하는 노부모와의 관계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 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6*(1), 19-38. http://dx.doi.org/10.7856/kjcls.2015.26.1.19

이재림, 박제인, 김혜지, 오상민, 권소영 (2019). 청년의 세대관계 유형화: 세대 간 결속의 하위차원을 중 심으로. *Family Environment Research, 58*(1), 43-60. https://doi.org/10.6115/fer.2020.004

정경희 (2018). 노인의 가족 현황과 전망. *보건복지포럼, 264(02)*, 6-18.

정규형, 김종성, 윤지희 (2013). 노부모-자녀와의 구조적접촉적 결속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자녀관계 만족도의 매개효과. *노인복지연구, 60*, 237-257.

정순둘, 이루리 (2014). 중장년층, 노년층의 노화인식과 세대간 결속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

9(3), 25-42.

통계청 (2023). 인구총조사 각년도.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5065**

통계청 (2024). 사회조사 각년도.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o.do?clasCd=10&idxCd=F0047**

행정안전부 (2024). 2024 행정안전통계연보.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13**

Bengtson, V. L. (2001). Beyond the nuclear family: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multigenerational bonds: the burgess award lectur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3*(1), 1-16. https://doi.org/10.1111/j.1741-3737.2001.00001.x

Bengtson, V. L., Biblarz, T. J., & Roberts, R. E. (2002). *How families still matter: A longitudinal study of youth in two gener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Bengtson, V. L., & Roberts, R. E. (1991).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in aging families: An example of formal theory constru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4), 856-870. https://doi.org/10.2307/352993

Buyukkececi, Z., & Çineli, B. (2024). Adult sibling relationships: The impact of cohabitation, marriage, separation, and childbearing.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86*(3), 698-717. https://doi.org/10.1111/jomf.12949

Carstensen, L. L. (2021). Socioemotional selectivity theory: The role of perceived endings in humanmotivation. *The Gerontologist, 61*(8), 1188-1196. https://doi.org/10.1093/geront/gnab116

Connidis, I. A., & Barnett, A. E. (2018). Sage publications.

Dykstra, P. A., & Fokkema, T. (2011). Relationships between parents and their adult children: A West European typology of late-life families. *Ageing & Society, 31*(4), 545-569. https://doi.org/10.1017/S0144686X10001108

Hwang, W., Hadi, N., Brown, M. T., & Silverstein, M. (2024). Intergenerational and digital solidarity: Associations with depressive symptom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86*(2), 331-349. https://doi.org/10.1111/jomf.12968

Hwang, W., Kim, J. H., Brown, M. T., & Silverstein, M. (2022). Are filial eldercare norms related to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with older parents? A typological developmental approach.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36*(4), 585. https://doi.org/10.1037/fam0000920

Hwang, W., Min, J., Brown, M. T., & Silverstein, M. (2024).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and digital communication during the Covid-19 pandemic in South Korea: Implications for dyadic well-being. *Family process, 63*(2), 912-931. https://doi.org/10.1111/famp.12928

Lawrence, R. H., Bennett, J. M., & Markides, K. S. (1992). Perceived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and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older Mexican Americans. *Journal of Gerontology, 47*(2), S55-S65. https://doi.org/10.1093/geronj/47.2.S55

Lüscher, K., & Pillemer, K. (1998). Intergenerational ambivalence: A new approach to the study of parent-child relations in later lif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3-425. https://doi.org/10.2307/353858

Guo, M., Chi, I., & Silverstein, M. (2012). The structure of intergenerational relations in rural China: A latent class analysi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4(5), 1114-1128. https://doi.org/10.1111/j.1741-3737.2012.01014.x

Nylund-Gibson, K., & Choi, A. Y. (2018). Ten frequently asked questions about latent class analysis. *Translational Issues in Psychological Science, 4*(4), 440-461. https://doi.org/10.1037/tps0000176

Oh, D. J., Yang, H. W., Suh, S. W., Byun, S., Kim, T. H., Kwak, K. P., … & Kim, K. W. (2023). The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on depression in community-dwelling older adults: a prospective cohort study. *Psychological medicine, 53*(7), 2992-2999. https://doi.org/10.1017/S0033291721005018

Park, K. S., Phua, V., McNally, J., & Sun, R. (2005). Diversity and structure of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s: Elderly parent-adult child relations in Korea. *Journal of Cross-Cultural Gerontology, 20*(4), 285-305. https://doi.org/10.1007/s10823-006-9007-1

Popenoe, D. (1993). American family decline, 1960-1990: A review and appraisal.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7-542. https://doi.org/10.2307/353333

Riley, M. W. (1983). The family in an aging society: A matrix of latent relationships. *Journal of family issues*, (3), 439-454. https://doi.org/10.1177/019251383004003002

Riley M. W., Riley J. W., Jr (1993). *Connections: Kin and cohort.* In Bengtson V. L., Achenbaum W. A. (Eds.), The changing contract across generations (pp. 169-190). New York, NY: Aldine de Gruyter.

Silverstein, M., & Bengtson, V. L. (1997).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and the structure of adult child-parent relationships in American famil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3*(2), 429-460.

Silverstein, M, & Bengtson, V. L. (2019). *Longitudinal Study of Generations, California, 1971, 1985, 1988, 1991, 1994, 1997, 2000, 2005 [Data File and Codebook].* Retrieved September 15, 2024 from https://www.icpsr.umich.edu/web/NACDA/studies/22100.

Tosi, M., & Grundy, E. (2019). Intergenerational contacts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older parents in Eastern Europe. *Aging & mental health, 23*(6), 686-692. https://doi.org/10.1080/13607863.2018.1442412

van de Vijver, F. & Leung, K. (1997). Methods and data analysis of comparative research. In J.W. Berry, Y. H. Poortinga, & J. Pandey (Eds.), *Handbook of cross-cultural psychology* (Vol. 1). (2nd ed.) (pp. 257-300). Allyn & Bacon.

Vasilenko, S. A. (2022). More than the sum of their parts: A dyad-centered approach to understanding adolescent sexual behavior. *Sexuality Research and Social Policy, 19*(1), 105-118. https://doi.org/10.1007/s13178-020-00528-9

Vermunt, J. K., & Magidson, J. (2021). *Upgrade manual for Latent GOLD*

basic, advanced/syntax, and choice version 6.0. Statistical Innovations. Retrieved September 15, 2024 from **https://www.statisticalinnovations.com/wp-content/uploads/LG60manual.pdf.**

Yesavage, J. A., & Sheikh, J. I. (1986). 9/Geriatric depression scale (GDS) recent evidence and development of a shorter version. *Clinical Gerontologist, 5*(1-2), 165-173. https://doi.org/10.1300/J018v05n01_09

접 수 일: 2024. 10. 22
심 사 일: 2024. 11. 25
게재확정일: 2025. 02. 15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Patterns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Older Adults in Jeju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he Consideration of Multiple Children*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Psychology, Kangwon National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Min, Joohong**
Department of Family & Resourc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Hwang, Woosang***

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 patterns between older parents and their adult children, and to explore the associations between these patterns and depressive symptoms. Previous studies have relatively lacked consideration of the multidimensionality of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 solidarity, and very few have considered multiple children in their analyses. **Methods:** Using survey data collected in 2021 from 700 older adults aged 65 and older in Jeju Province, this study conducted latent class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Results:** This study found two different types of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intimate" and "intimate but distant." The "intimate" class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lower depressive symptoms when compared to the "intimate but distant" class. However,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depressive symptoms was found between types in the relationship with the third most frequently contacted child. **Conclusion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family still functions as an important social institution and that service and policy considerations are needed for older adults who are particularly restricted in face-to-face contact and related daily life support when public services do not function properly during social crises.

Key words: adult children, aging parents, COVID-19, latent class analyses, solidarity

---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2021S1A5A8064814)
** Lead Author: https://orcid.org/0000-0001-5292-3905
*** Corresponding Author: woosanghwang@sookmyung.ac.kr, https://orcid.org/0000-0002-2034-3970